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구조에 대한 연구*

김 선 희**

A Study on the Tourism Structure of the Southern Region in Kangwon Province*

Sun-Hee Kim**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관광환경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강원 남부지역을 사례로 관광객, 관광자원, 관광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지역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구조적 특징은 강릉·원주 등 교통중심지와 정선·태백·삼척 등 석탄산지의 관광수요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현저한 반면 지역적으로 자연관광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관광수요의 하계 집중현상, 관광편의시설의 영세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원 남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자원의 다양성 확보, 관광자원의 유형별 목록화, 지역간의 관광연계 프로그램 개발, 관광편의시설의 고급화, 관광시장의 확대, 관광권역의 세분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주요어 : 관광객, 관광자원, 관광사업, 관광구조, 관광수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관광권.

Abstract :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tourism structure of the southern region in *Kangwon* province and to correct the problems regarding the subject. The methods of comparison and analysis on structur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ourists, tourism resources, and tourism industry by region have been employed. It was found that the southern region of *Kangwon* province has many advantages for tourism industry including excellent transportation networks such as *Kangnung* and *Wonju* and tourism demands are great for coal mines in the region including *Chongson*, *Taebaek*, and *Samchok*. Accordingly, tourism in the region has witnessed a distinctive increase in recent years. On the other hand, excessive dependence on nature-based tourism, concentration of tourism demands only during summer season, and insufficient tourism facilities are found to be problems. This study also found tha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s in the southern region of *Kangwon*, categor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of combined programs connecting *Kangwon* province to other regions, improvement of tourism facilities, expansion of tourism market, and smaller division of tourism area are necessary.

Key Words : tourist, tourism resources, tourism industry, tourism structure, tourism deman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area.

1. 서론

1) 연구목적

세기의 전환기에서 우리 나라의 관광환경은 다 변화되고 있다. 경제적 풍요와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 및 통신의 혁신적 발달 등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대규모 관광개발을 촉발하고, 관광의 양적 팽창을 극대화시킴으로써 20세기 대중관광(mass tourism)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이제 새로운 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나라의 관광환경은 기존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변화에 대한 수요 증대에 직면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of Humanit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unny-sungshin@hanmail.net

하고 있다. 21세기 정보사회, 지식사회의 도래는 개인관광(individual tourism)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관광이 고부가가치의 경제산업에서 생활양식 또는 문화양식을 기초한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이자 문화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존 대중관광의 폐해 현상이 최근 각종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맞물리면서 인간의 이용과 만족을 위하여 환경파괴가 감수될 수 있다는 개발논리가 강력한 도전을 받음으로써 문화와 환경에 친화적인 새로운 형태의 관광양식이 요구되고 있다(Butler, 1994).

여기에 주 5일 근무제의 실현과 관광교류를 비롯한 남북 교류의 확대 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관광의 질적 욕구는 기존 관광지와 관광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관광은 직·간접적으로 지역 사회 및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장소(place), 경관(landscape), 입지(location), 자원(resources), 접근성(accessibility) 등 지리적 요소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김선희, 1996). 따라서 지역의 관광환경 및 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광지리조사와 실증적인 지역연구는 단절된 지역간의 문화 동질성 회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적인 관광발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지리적 환경을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고찰하고 관광객, 관광자원, 관광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지역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남·북한 강원도의 관광구조에 대한 지역 연구를 통하여 강원지역의 효율적인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과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차적인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와 방법

강원도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관광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낙후된 소외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남북으로 분단된 지정학적 특수성과 불리한 지리적 여건, 취약한 산업구조 등은 강원도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지역의 전략산업

이자 비교우위의 선도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관광산업의 정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최근 강원지역은 국내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여건 변화와 함께 관광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강원 남부지역은 북한 강원도는 물론 남한 강원도의 북부지역에 비하여 대도시와의 접근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국토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1998년 개방된 금강산 지역과 동해지역이 남북 관광교류의 교두보로 연계되면서 다양한 남북 교류의 단초를 제공함은 물론 그 동안 정체되었던 강원도의 관광산업에 전기가 되어 왔다. 또한 일찍부터 우리 나라 석탄산업의 중심권으로 자리 매김하였던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지가 폐광에 따른 경제위기를 카지노 산업을 비롯한 관광위락산업의 육성과 석탄산지의 관광지화를 꾀함으로써 지역 경제기반과 관광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강원지역의 문화동질성 회복과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균형적인 관광발전을 위하여 강원지역의 관광지리적 환경과 관광구조적 특성 및 변화에 대한 1차적인 지역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강원도의 관광권을 관광환경과 자원분포, 접근성, 관광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북 강원지역을 북부관광권으로 설정하고, 남 강원지역은 춘천, 속초,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중부관광권과 강릉, 원주,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부관광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에 1차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최근 관광환경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남 강원지역의 남부관광권에 속하는 5개시(원주·강릉·동해·삼척·태백)와 4개군(횡성·평창·정선·영월)으로 제한하였다.

강원도 남부 관광권의 관광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그에 따른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강원 남부의 5개시, 4개군 지역에 대한 인구 및 가구의 변화, 교통체계와 접근도, 산업구조와 토지이용 등을 통하여 관광환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역답사를 통해 얻어진 지역별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수요 규모와 성장, 계절별·자원별 관광수요의 구조와 특성을 지역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관광지도를 통하여 지역별 관광자원을 확인하고, 관광자원을 크게 자연·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사회·산업자원, 스포츠·위락자원 등으로 유형화하여 지역별 관광견인력을 비교하고, 그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관광산업의 규모와 지역별 분포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관광산업의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관광통계자료의 신뢰도가 낮고, 자료의 미비로 시간적, 공간적 비교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며, 향후 남·북 강원도의 효율적인 관광권 설정과 지역간 비교 연구를 위하여 샘플 조사 및 설문 조사 등 통계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광구조의 이해

관광은 일상적, 반복적 생활에서 변화를 찾으려는 인간욕구의 실현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시간적·공간적 선택과정의 결과이다. 관광욕구는 관광대상의 설정과 관광행태 및 관광객의 사회, 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기초로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만족되어지며(Mill and Morrison, 1985), 관광객의 관광목적지의 선택은 서로 다른 지역 또는 장소의 다양한 지리적 요소들과 이들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지역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성(regionality)은 관광매력 요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인자로서 관광욕구를 유발시키고 동기를 충족시켜 주며, 나아가 관광현상의 지역적,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주게된다(김선희, 1997). 이러한 지표공간의 다양성은 지리학 고유의 관심 영역이므로 관광은 하나의 지리적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Robinson, 1975), 나아가 관광이 지역경관의 구조와 형태, 지리환경의 이용과 보존, 지역의 변화와 성장 등 지

역사회와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다.

관광이 인간의 공간적 이동을 전제하고 있다면 관광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관광자원, 관광사업 등 3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에 장소(place), 교통(transport), 편익시설(accomodation)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장소는 관광목적지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교통은 관광객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편익시설은 관광지에서의 숙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관광객의 관광하고자 하는 의지는 관광행위의 제1의 성립요소이다. 관광객은 누구나 관광의욕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관광의 수요자 또는 소비자로서 관광시장을 형성하는 주체가 된다. 관광자원 및 관광지는 관광행위의 제2의 성립요소로서 관광객에게 관광의욕을 유발시키고 관광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관광대상은 자연경관으로부터 풍속, 문화, 사적, 사업시설, 인물 등에 이르기까지 물적·인적, 문화·역사적 유형자원과 관광지 주민의 환대성, 친절, 서비스 등 무형자원이 포함되어 매우 복합적인 성향을 띤다. 관광사업은 관광의 주체와 객체를 결합시켜 주는 매체로서 관광행위의 제3의 성립 요건이 된다. 도로·교통시설 등 관광객의 이동과 관련된 공간적 매체, 숙박·휴식시설 등 체재와 관련된 시간적 매체, 여행알선·관광안내·정보제공 등의 기능적 매체, 제도·법규 등의 정책적 매체 등이 있다(김선희, 2000).

2. 연구지역의 관광지리적 환경

1) 국민관광 선호도와 관광권 개발

국민의 관광패턴과 지역 선호도는 국가의 다양한 내외적 영향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관광 참가율은 2001년 96.7%로 1997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목적지에 대한 선호도는 숙박관광의 경우 강원도 지역이 28.1%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일관광의 경우는 경기도가 22.6%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거주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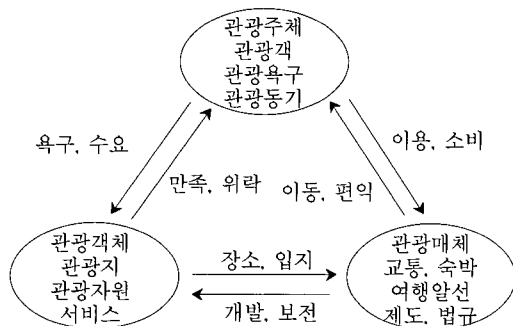


그림 1. 관광의 구조

를 보면 도내 거주자가 48.1%로 가장 많아 대부분 거주지역과 인접한 관광목적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관광의 월별, 계절별 분포를 보면 강원도 지역은 계절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방문율을 보여 4 계절 숙박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31.3%)과 겨울(30.4%)의 방문율이 높게 나타났다. 체재형 숙박관광의 패턴은 주로 휴가와 주말을 이용한 관광이 증가하였고, 콘도미니엄, 민박, 친지집 등의 숙박시설을 선호하여 편리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관광활동유형을 보면 자연탐방형 관광이 35.1%로 가장 높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탁형 관광이 14.8%를 차지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02).

이러한 국민관광 패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강원도 지역의 관광잠재력과 성장성에 대한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지역내 관광의 한계를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관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장의 광역화와 지역간의 연계성 제고, 관광편익시설의 고급화, 자연관광자원 및 환경의 보전,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지역에 대한 관광권 개발은 1972년 설악산권이 전국 10대 관광권에 포함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5대권 24개발소권 가운데 중부관광권으로 재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부관광권의 개발소권은 서울근교권, 인천해안권, 춘천권, 치악산권, 설악산권, 강릉·태백권 등 6개권으로 구분되며, 강원도는 4개의 개발소권으로 개발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1989). 그 가운데 강원 남부지역의 치악산 관광권은 영서 남부권의 중심 축인 원주시를 거점으로 황성·영월지역을 포함하고, 강릉·태백권은 영동 남부권의 중심 축인 강릉시와 동해·삼척·평창·

태백·정선지역을 포함하여 관광지의 특성과 접근성, 개발수준 및 영향범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인구와 가구 변화

지역사회의 인구 및 가구 규모와 성장, 구조와 이동 등 인구통계적 특성은 관광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구규모는 관광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기본적인 영향인자로 작용하며, 지역의 관광시장과 세력권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01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관광목적지로 대부분 거주지와 인접지역의 관광지를 선호하여 관광세력권이 제한됨으로써 지역내 관광시장성 확보가 관광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국토면적의 약 16.7%를 점유하고 있지만 상주인구가 1,556,904명, 가구수가 521,728세대로 전국 대비 각각 3.2%와 3.3%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강원 남부지역은 강원도 전체 인구의 60.3%, 가구의 5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85년의 55.8%, 55.4%와 비교할 때 강원도 내에서의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구 및 가구성장 면에서 강원도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추진되기 전인 1985년 1,724,809명이던 인구가 폐광의 영향으로 2000년 1,559,042명으로 줄어 9.6%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강원 남부지역의 인구는 2.3%의 감소에 그쳤으나 지역별 인구증감 현상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조건이 원활한 원주지역과 영동지역의 중심지이자 관광견인력이 큰 강릉지역, 남북 관광교류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공업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동해지역 등이 인구유입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세대수에서도 역시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표 1. 국민관광 참가율

(단위: %)

관광형태	1994	1997	1999	2001
총 관광	90.5	87.9	91.8	96.7
숙박관광	68.8	59.6	63.7	71.0
(강원지역선호도)	(24.5)	(26.2)	(26.3)	(28.1)
당일관광	79.9	78.4	77.4	85.9

자료: 한국관광연구원, 1997; 한국관광공사, 2002.

인접한 횡성·평창·삼척 등지에서의 인구유입과 핵가족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폐광 이후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던 정선·태백·영월·삼척 등지의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대도시에 인접한 평창·횡성지역도 이촌향도의 사회현상에 따라 인구유출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석탄산지의 인구 및 가구의 감소현상이 이들 지역의 경제기반 구조변화에 대한 요구를 확대시켰으며, 카지노를 비롯한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교통체계와 접근도

관광수요의 증대와 관광산업의 성장은 교통체계의 혁신적인 발달에 기인하고 있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체계는 관광객의 공간적 이동은 물론 관광지 내에서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관광시장과 관광목적지 간에는 거리가 존재하고, 이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의 공간적 수요가 존재하게 된다. 관광의 공간적 수요는 관광욕구와 동기, 매력인자, 지형과 거리 요소, 교통체계 등에 의해 결정되며, 외부 지역과의 접근성은 관광수요 창출 및 성장잠재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교통체계와 접근성은 관광환경을 구성하는 1차적인 요건으로 좁게는 지역관광에서 넓게는 전국적인 관광세력권까지 관광구조 변화에

영향을 준다(김선희, 1996).

강원 남부지역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태백산맥으로 가로막힌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남북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과는 원격지로서 교통여건이 불량했으며, 동해안을 따라 남북을 연결하는 단순한 교통체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동(1975년)·동해(1978년)·중앙(1995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영동선·태백선·정선선 등의 철도와 동해·삼척·목호·옥계항 등의 항만, 강릉·원주를 중심으로 한 항공체계가 연결되면서 교통체계 및 지역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영서지역의 중심지인 원주권과 영동지역의 중심지인 강릉권이 도로, 철도, 항공 등의 교통체계가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어 교통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통수단별 연결노선과 운행횟수를 고려할 때 강원 남부지역의 광역 교통체계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영남권 및 강원 북부지역과의 연계체계가 편리해진 반면 호남·충청지역과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태백, 영월, 정선, 삼척 등지의 도로 및 지역간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교통체계 및 접근환경은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세력권이 강원도 내와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등지에 제한되어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표 2. 강원 남부지역의 지역별 인구와 가구 변화

지역	면적(km ²)	인 구 (인)			가 구 (세대)		
		2000	1985	성장율(%)	2000	1985	성장율(%)
전 국	99,460,740	47,976,730	40,448,486	▲ 18.6	15,762,275	9,571,361	▲ 64.7
강 원 도	16,873,697	1,559,042	1,724,809	▽ 9.6	521,728	403,174	▲ 27.2
남부지역	8,386,737	940,791	963,118	▽ 2.3	312,738	223,257	▲ 40.1
원 주 시	867,773	270,891	151,372	▲ 78.9	88,050	35,646	▲ 147.0
강 룡 시	1,040,087	233,812	132,995	▲ 75.8	77,753	31,773	▲ 144.7
동 해 시	180,074	104,409	91,757	▲ 13.8	34,200	22,231	▲ 53.8
삼 척 시	1,185,804	82,255	133,058	▽ 38.2	27,655	29,232	▽ 5.4
태 백 시	303,528	57,067	113,993	▽ 49.9	19,042	26,365	▽ 27.8
횡 성 군	997,866	46,158	60,520	▽ 23.7	15,149	13,674	▲ 10.7
평 창 군	1,463,650	47,190	68,618	▽ 31.2	16,251	15,602	▲ 4.2
정 선 군	1,220,837	50,572	128,781	▽ 60.7	17,570	29,559	▽ 40.5
영 월 군	1,127,118	48,437	82,024	▽ 41.0	17,068	19,175	▽ 11.0

자료: 강원도 통계연보, 2001; 해당 시·군 통계연보, 1986·2001.

4) 산업구조와 토지이용

강원도는 지형 및 위치 상 산업입지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관광환경과 관광성장 잠재력은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대도시로 연결되는 교통시설 등 산업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 등 제약적인 변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데 원인이 있다. 경제규모가 작고 산업이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닌 강원도 지역에서 관광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절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정석중, 2000).

강원도의 산업구조는 생산액 기준으로 농·림·어업이 9.1%, 광공업 17.3%, 서비스 및 기타산업이 73.6%로 3차 산업이 특화되어 있으나 규모면에서 영세하며, 특히 관광산업의 주된 업종인 음식, 숙박업체들의 규모가 작고 낙후하여 관광공급측면에서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이종민, 2000). 또한 산업별 고용구성비를 보면 관광산업과 연관성이 높

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강원도 36.3%, 강원 남부지역 34.5%로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반면 제조업은 각각 10.6%, 9.5%, 농·임·어업은 각각 0.5%, 0.4% 등으로 전국 평균치에 미달하거나 비슷하여 지역의 경제기반이 3차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강원 남부지역이 강원도에 비해 광업의 고용 구성비가 높아 아직까지 광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의 가용토지는 생활공간으로써, 각종 생산활동공간 및 휴양·여가활동공간으로써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강원 남부지역의 토지이용을 지목별로 보면 총 면적 16,873,697km² 가운데 임야가 전체 면적의 8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 10.32%, 하천 및 제방 2.36%, 대지 및 공장·학교 1.10%, 도로·철도 1.3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목별 토지이용이 대부분 남 강원 전채지역에 대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전국 최대를 나타내는 임야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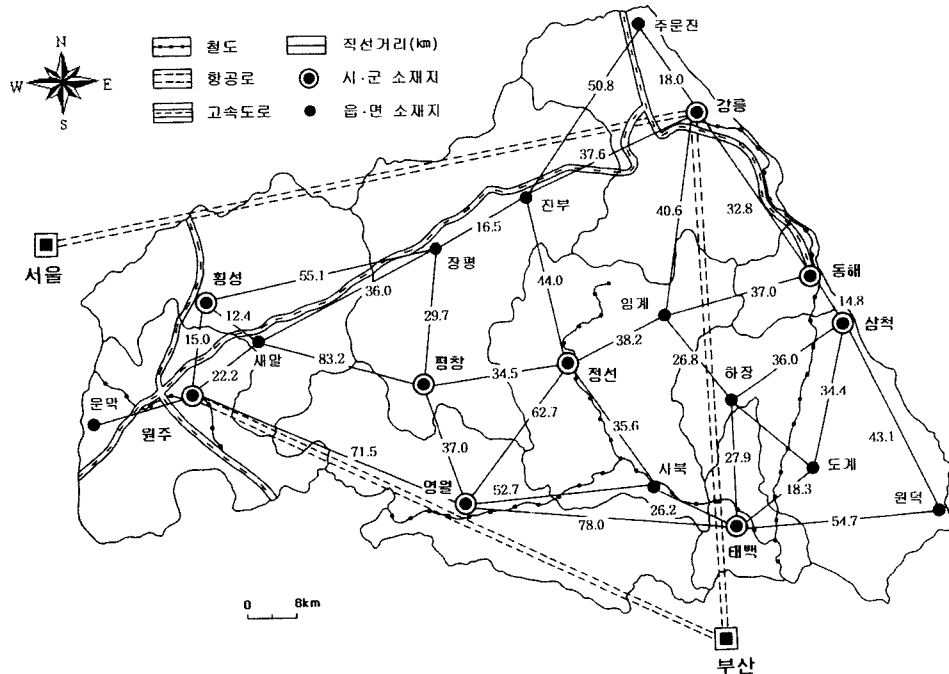


그림 2. 교통체계와 지역간 거리
 자료: 강원도청 교통정보과, 2001, 내부자료.

표 3. 강원 남부지역의 산업별 고용구성비 (단위: 명, %)

산업분류	전국		강원도		강원 남부지역	
	고용자수	구성비	고용자수	구성비	고용자수	구성비
농·임·어업	56,108	0.4	1,872	0.5	1,008	0.4
광업	21,406	0.1	7,404	1.6	7,141	2.8
제조업	3,333,018	24.5	43,921	10.6	24,165	9.5
전기·가스·수도사업	56,629	0.4	3,167	0.7	1,957	0.8
건설업	640,755	4.7	24,852	5.6	15,922	6.3
도소매·음식·숙박업	4,049,202	29.8	150,128	36.3	87,732	34.5
운수·창고·통신업	896,131	6.6	27,399	6.8	19,573	7.7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562,473	11.5	37,119	9.6	22,410	8.8
공공행정·국방·교육서비스업	1,442,090	10.6	64,974	14.8	38,475	15.2
보건·사회복지사업	487,902	3.6	17,423	3.9	10,776	4.2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	318,409	2.3	13,461	3.0	8,987	3.5
기타 공공·개인서비스업	740,151	5.4	26,269	6.5	15,802	6.2
총계	13,604,274	100.0	419,635	100.0	253,948	100.0

자료: 통계청, 2002: 2001 강원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표 4. 강원 남부지역의 지목별 토지이용 (단위: km², %)

지역	총면적	경지	임야	하천·제방	대지 및 공장·학교	도로·철도	기타
강원도	16,873,697	1,713,142	13,676,631	384,791	158,848	198,259	747,026
남부지역	8,386,737	865,249	6,962,098	197,814	92,537	109,894	159,250
점유율	44.4	50.5	50.9	51.4	58.3	55.4	21.3

자료: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2001, 내부자료: 해당 시·군, 2001, 통계연보.

은 지역의 산업화와 접근성 등에 제약이 되어 왔고, 이는 동시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기초로 전국 최고의 관광목적지 선호도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강원 남부지역의 용도지역 이용을 보면 총 고시면적 8,404.76km² 가운데 농림지역이 66.5%, 준농림지역 19.0%, 자연환경보전지역 7.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지리적 환경 고찰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국민관광 목적지 선호도가 가장 높고, 4계절 숙박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뚜렷하다. 둘째, 관광수요와 공급의 기본 요소가 되는 인구와 가구의 점유율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별로는 강릉, 원주, 동해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정선, 태백, 삼척, 영월 지역이 감소하였다. 셋째,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지역 내·외적으로 교통체계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넷째, 산업별 생산

액과 고용구성비 등에서 관광과 관련한 3차 산업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농업이 저조하였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80%가 넘는 임야율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횡성, 평창, 정선, 영월 등지의 토지이용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관광수요 구조와 성장

1) 관광수요의 규모와 성장

관광은 관광객, 관광자원, 관광사업 등 세 요소들 간의 시·공간적, 기능적 결합으로 나타나는 체계적인 사회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Leiper, 1991). 관광구조의 제1 성립요소인 관광객은 관광욕구와

표 5.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수요 성장

지 역	관 광 객 (인)			관 광 수 입 (천원)		
	2000	1995	성장율(%)	2000	1995	성장율(%)
강 원 도	51,400,692	40,031,166	▲ 28.7	824,545,440	379,705,152	▲ 117.2
남부지역	26,546,090	21,676,205	▲ 22.5	676,942,333	257,488,339	▲ 162.9
점 유 율	51.6	54.1	▽ 4.6	82.1	67.8	▲ 21.1

주: 홍천·화천군은 1996, 횡성군은 1998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해당 시·군, 1996·1999·2001, 통계연보.

동기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관광수요자로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물론 성·연령·교육수준 등 인구 통계적 요소, 교통수단·여행거리·여행경험·소득정도 등 물리적인 요소, 관광가치와 인식 같은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관광수요 규모는 관광객과 관광수입의 성장과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관광구조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객 수는 2000년 현재 26,546,090명이며, 관광수입은 676,942,333천원으로 강원지역 총 규모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여 강원 중·북부 관광권 보다 관광

수요 규모가 앞서 있다. 그러나 1995년과 비교할 때 관광객은 22.5%가 증가하여 강원도 성장률을 하회하는 반면 관광수입은 162.9%의 큰 성장 폭을 보여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관광객과 관광수입의 분포 구조를 보면 강릉지역의 관광객과 관광수입 규모가 강원 남부지역에서 각각 44.6%, 76.0%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창과 태백지역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영월지역은 각각 2.6%, 0.1%의 규모로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현재 강원 남부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여전히 행정, 교통의 중심지이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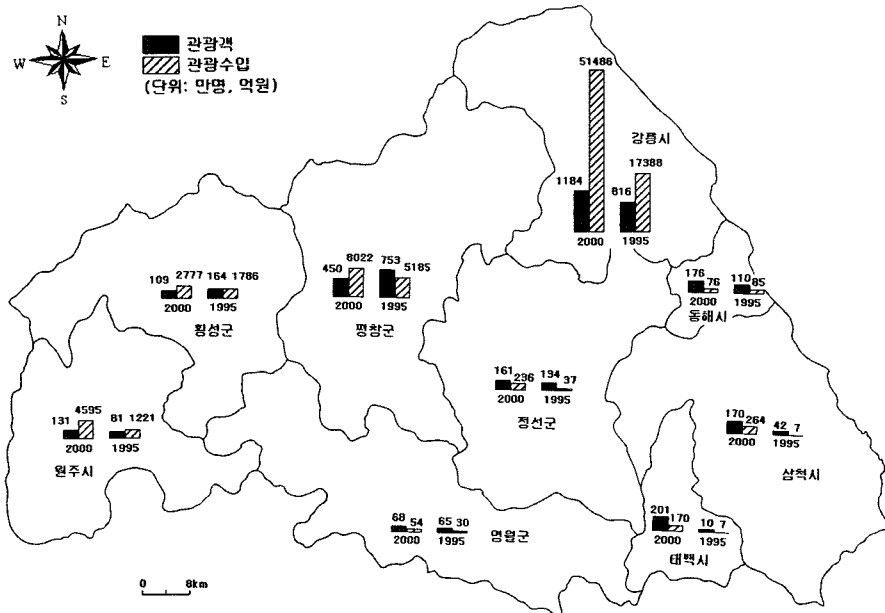


그림 3. 강원 남부지역의 지역별 관광객 및 관광수입의 변화
 주: 홍천·화천군은 1996, 횡성군은 1998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해당 시·군, 1996·1999·2001, 통계연보.

보유하고 있는 강릉지역과 대규모 리조트가 밀집한 평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관광수요의 성장을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관광객의 경우 태백시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져 5년 동안 1,829.5%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삼척·원주·동해·강릉지역이 남부지역 전체의 평균 성장율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평창·횡성지역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수입은 관광객 성장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삼척·태백·정선지역이 지난 5년 동안 각각 3,361.2%, 2,331.5%, 526.8%의 급신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석탄산지의 관광성장세는 카지노산업육성, 동굴박람회 및 눈축제, 석탄박물관 개관 등 관광수요 견인력이 큰 이벤트 개최와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 계절별 관광수요 구조

관광수요의 월별, 계절별 구조는 지역의 관광환경 및 자원특성은 물론 지역성까지 반영하고 있어서 관광구조 분석뿐 아니라 지역연구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00년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총 51,479,680명이며, 이 가운데 54.9%인 28,238,635명이 강원 남부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북강원지역과 남강원 북부지역에 비하여 남부지역의 관광수요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계절별 분포를 보면 강원도가 전통적으로 해안·하천·산악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여름철과 가을철의 관광수요가

높다. 그러나 강원 남부지역은 여름철의 높은 관광수요와 함께 스키리조트, 눈꽃축제와 눈꽃열차 운행, 카지노 개장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에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강원지역의 권역별 관광수요 구조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강원 남부권의 관광수요 구조가 하계 집중형에서 4계절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평가되며, 향후 지역별 관광자원의 다양성 확보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 남부의 지역별·월별 관광수요 구조를 분석해 보면 강릉·동해·삼척지역은 7, 8월에 관광객이 집중하여 해수욕장·하천과 계곡·동굴 등 관광특화도가 높은 자연관광자원을 기초한 하계 관광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정선·영월지역은 하계 집중이 둔화되고, 태백·횡성·평창지역은 동계 관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원주지역은 산악과 하천관광자원을 중심으로 10월과 8월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선지역은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 위락관광자원의 개발과 홍보의 영향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고른 관광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강릉·영월지역은 문화관광자원을 기초한 춘계 단체관광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관광지별 관광수요 구조

지역의 관광성장과 잠재력은 관광지 및 관광지원별 견인력과 특화 정도에 따라 보다 명확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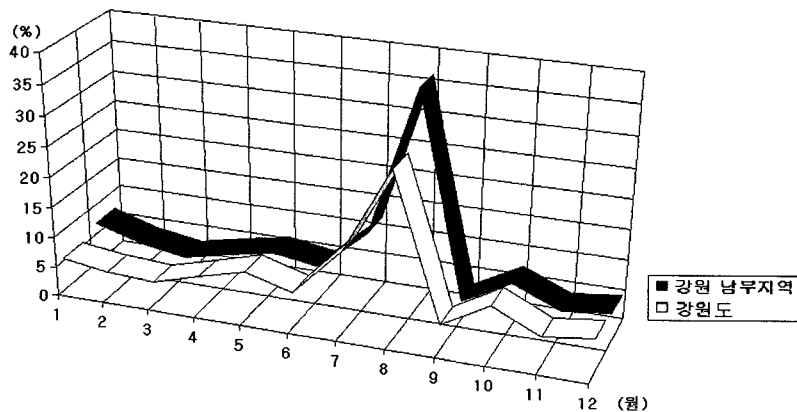


그림 4. 강원 남부지역의 월별 관광수요 분포

자료: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2001, 내부자료; 해당 시·군, 2001, 통계연보.

할 수 있으며, 특화 관광자원의 규모는 지역의 관광성장과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강원 남부지역의 지역별 관광자원 보유 정도와 유형을 보면 관광수요 규모가 가장 큰 강릉지역은 자연형과 문화형 관광자원의 특화도가 높고, 관광자원의 유형도 가장 다양하게 분포하여 4계절 관광지화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광자원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태백·삼척·정선 등으로 이는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에 기인하고 있으며, 평창·횡성지역은 자원의 유형에 비하여 관광견인력이 큰 대규모 스키리조트가 특화자원으로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국립공원의 관광견인력을 상회하고 있다.

그 외 원주·동해지역은 각각 국립공원과 해안관광지의 관광견인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내 관광자원의 유형이 단순하여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관광자원에 따른 수요 창출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월지역은 문화관광자원이 비교우위에 있고, 정선지역은 동굴자원의 특화도가 높은 가운데 카지노와 5일장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 남부지역의 관

광자원 특성에 따른 견인력은 아직까지 대부분 자연관광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석탄산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의 발굴과 개발, 홍보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그 한계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수요 구조와 성장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2000년 현재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지역적으로 강원 남부권의 관광거점인 강릉지역과 대규모 리조트가 집중되어 있는 평창지역 등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관광수요의 성장을 1995년과 비교할 때 태백, 삼척, 정선지역 등 석탄산지들이 급신장하였다. 이는 석탄산지들이 폐광 이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관광을 선택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유도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남북 관광교류의 교두보로 관심을 집중시켰던 동해지역은 관광수요 성장이 미미하여 정책적 파급효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해지역의 관광환경이 지역내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부족과 인접지역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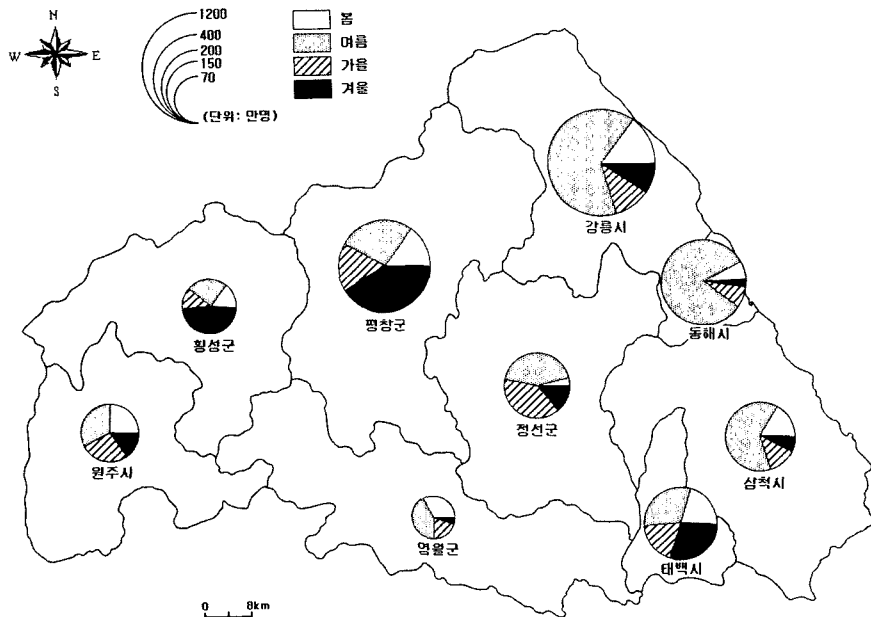


그림 5. 강원 남부지역의 지역별·계절별 관광객 분포와 규모

자료: 해당 시·군청 관광과, 2001, 내부자료.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체재형 관광지보다는 경유지로서의 기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강릉, 원주지역 등 교통·행정 중심지역은 중앙고속도로의 개통과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등에 힘입어 관광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광수요의 계절별 분포는 하계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지역적으로 동계(평창, 횡성), 춘계(강릉, 영월), 추계(원주, 태백) 등의 관광수요가 신장 추세를 보였다. 여섯째, 관광지별 관광수요는 해수욕장, 국·도립공원, 동굴 등 자연관광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며, 그외 문화·위락·사회관광지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4. 관광자원의 유형과 분포

1) 관광지 및 문화재 지정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규모와 질은 지역의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특히 다양하고

질 높은 관광자원은 지역관광화의 1차적인 요소가 되며, 여기에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관광시설, 용이한 접근 등이 뒷받침될 때 관광수요는 빠르게 증가한다. 여기에 문화재를 비롯하여 국·도립공원 등 관광지 지정과 같은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연계되면 관광특화지역으로 성장하게 된다. 강원 남부지역은 뛰어난 관광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초로 국내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강원 남부지역의 문화재 및 관광지 지정과 분포로 확인할 수 있다.

관광지 지정과 관련하여 강원도 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설악산권이 포함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5대 관광권의 중부권에 속해 있으며, 치악산권과 강릉·태백권으로 나누어 개발되고 있다.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지는 국립공원 2개소, 도립공원 3개소, 군립공원 1개소, 관광지 17개소, 관광단지 3개소, 관광특구 1개소, 자연휴양림 30개소, 해수욕장 58개소 등이 지정되어 북강원도 및 남강원도 북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 우위에 있으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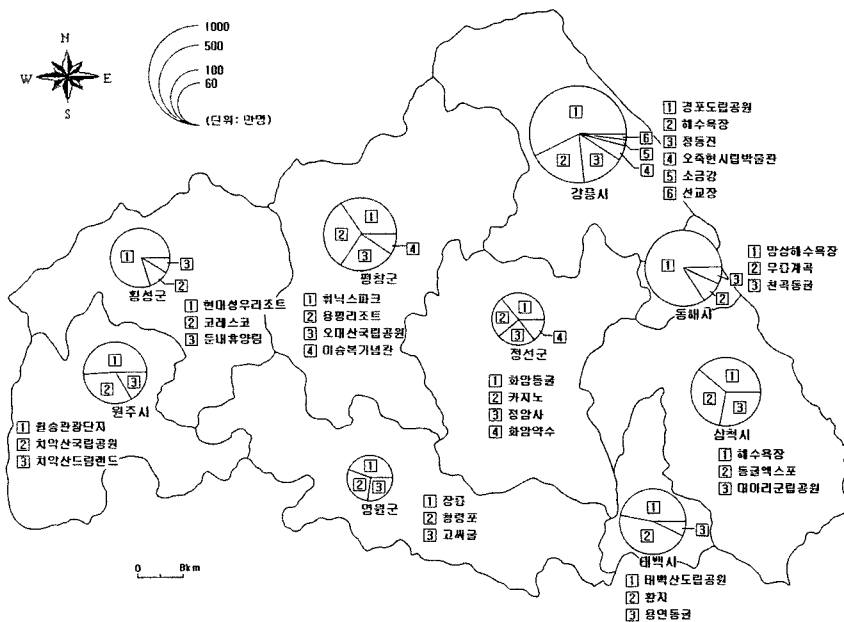


그림 6. 강원 남부지역의 지역별·관광지별 관광객 분포와 규모

주: 관광객 10만명 이상 규모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해당 시·군 관광정책과, 2001, 내부자료.

부분 자연관광자원에 편중되어 있다.

강원 남부지역의 문화재 지정과 지역별 보유 정도를 보면 총 293점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가 70점, 시·도지정문화재 159점, 강원도문화재자료 73점이 분포한다. 이는 강원지역 전체와 비교할 때 각각 62.5%, 72.6%, 68.2%의 점유율로 문화관광자원의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박물관 12개소, 향토자료관 12개소가 분포하여 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지역별 문화재 보유는 강릉시가 남부지역 총계의 33.1%를 점유하여 문화관광자원이 특화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전란의 피해가 적었고 일찍부터 영동지방의 문화중심지로 발전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강릉

지역의 문화재가 경포 해안관광지를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에 분포하여 관광자원간의 접근이 용이함으로써 관광수요 창출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원주·평창·삼척·영월지역 등의 문화재 보유 정도가 높다.

2) 관광자원의 유형별 분포

관광자원은 관광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라 관광지역의 제 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 분포와 입지, 특성 등은 관광지리학의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체계적인 관광자원 조사와 목록화는 지역의 관광계획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관광지역 연구 및 관광권

표 6.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지 지정

(단위: 개소)

지정유형	관 광 지(지역)	지정수	강원도	
자연 공원	국립공원	오대산(강릉·평창·홍천), 치악산(원주·평창)	2	3
	도립공원	경포(강릉), 태백산(태백)	2	3
	군립공원	대이리동굴(삼척)	1	2
관 광 지	간현(원주), 고씨동굴·영월은천(영월), 화암(정선), 강릉온천·옥계·등명·주문진·연곡(강릉), 어담산(횡성), 구문소(태백), 무릉계곡·망상해수욕장(동해), 장호·맹방·삼척·초당(삼척)	17	36	
관광단지	월송(원주), 봉평·용평(평창)	3	4	
관광특구	대관령(강릉·동해·평창·횡성 일원)	1	2	
자연휴양림	치악산·백운산·감악산(원주), 대관령·안인진임해·사기막(강릉), 함백산·태백고원(태백), 청태산·유현·둔내·봉화산·갑천·주천강변(횡성), 무릉계(동해), 검봉산·가곡(삼척), 구름령·백석산·계방산·홍정산·금당(평창), 가리왕산·광대곡·백봉령·단입골·반론산(정선), 장산·선달산·망경대산(영월)	30	49	
해수욕장	경포·주문진·연곡·옥계·사근진·강문·송정·등명·고성목·소돌·정동·사천 등(강릉), 망상·어달·추암·노봉 등(동해), 맹방·삼척·용화·임원·장호·덕산 등	58	99	

자료: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2002, 내부자료; 문화관광부, 2002; 환동해출장소, 2002, 내부자료.

표 7. 강원 남부지역의 문화재 및 문화시설 보유

지 역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박물관	향토 자료관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명승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무형 문화재				민속 자료
강 원 도	112	8	58	8	28	1	11	3	219	133	74	8	4	107	20	19
남부지역	70	6	27	5	20	1	8	3	159	107	43	6	3	73	12	12
점유율(%)	62.5	75.0	46.6	62.5	71.4	100.0	72.7	100.0	72.6	80.5	58.1	75.0	75.0	68.2	60.0	63.2

자료: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2002, 내부자료.

개발에 기초가 된다(권용우·김선희, 1994).

관광자원의 유형은 형성원인, 존재형태, 지정주체, 자원의 특성, 관련 학문분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을 자연·생태관광자원(산악·하천·해안·동굴·온천 등), 역사·문화관광자원(문화재·유적·사찰·묘역·전통가옥·문화경관 등), 사회·산업관광자원(박물관·전시관·시장·어항·특산물·산업시설 등), 스포츠·위락관광자원(스키리조트·골프장·카지노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관광자원이 지역사회 특성과 환경에 영향받고 있음을 고려한 관광지리학 분야의 유형화를 기초한 것이다.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자원 분포와 특성을 보면 첫째, 강원 남부지역은 관광지 및 문화재 지정 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특히 강릉지역의 문화재 분포가 두드러진다. 둘째, 산, 계곡, 해안, 동굴 등의 자연관광자원이 특화된 가운데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광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그 외 관광자원의 유형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문화관광자원(강릉·영월), 위락관광자원(정선·평창·횡성), 산업관광자원(동해·삼척) 등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넷째,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소수의 특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아직까지 관광자원의 발굴 및 이용도가 낮으며, 관광자원의 관리와 보전, 접근성 등이 취약하게 나타났다.

5. 관광사업의 구조와 특성

관광사업은 관광활동을 촉진시키고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관광현상은 매우 복잡,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므로 관광과 관련된 사업도 매우 다양하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식,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사업은 본질적으로 복잡성, 입지의존성, 변동성, 공익성, 서비스성 등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사업의 유형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나누고 있다(권용우·정태홍·김선희, 1995).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광객의 공간적, 시간적, 기능적 이용시설들이 고급화, 대형화, 고속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관광수요와 만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그 입지와 장소, 수용력 등에서 지역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관광객의 공간적 이동을 편리하게 하여 관광이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교통업은 고속성, 안정성, 쾌적성 등을 바탕으로 관광의 공간적 수요를 창출한다. 대중관광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여행업은 관광객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숙박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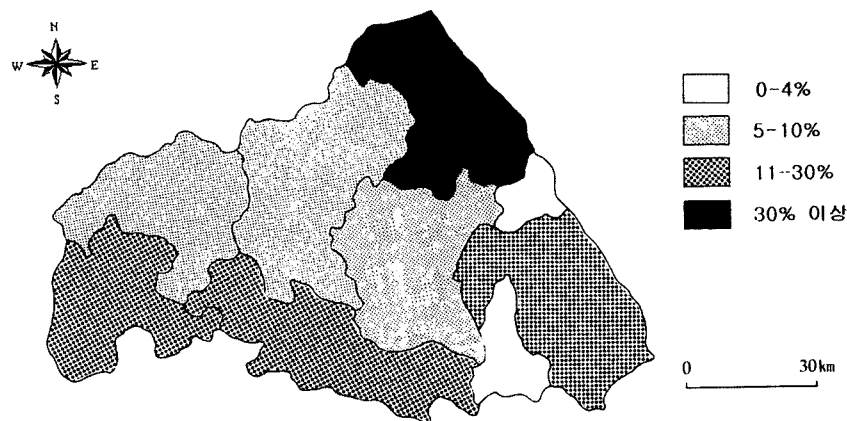


그림 7. 강원 남부지역의 지역별 문화재 보유율
 자료: 해당 시, 군의 문화예술과, 2002,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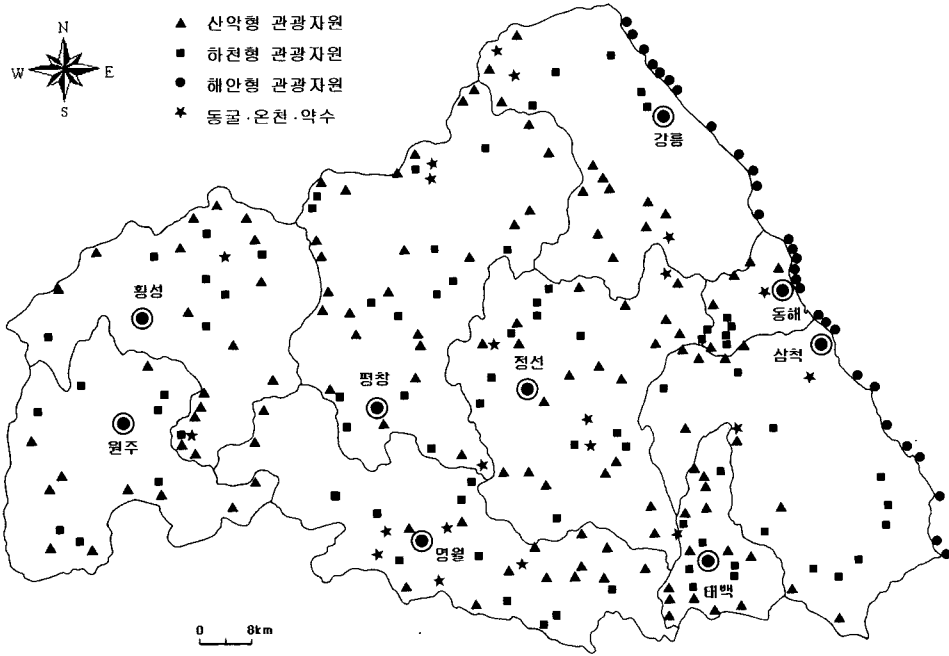


그림 8. 강원 남부지역의 자연·생태관광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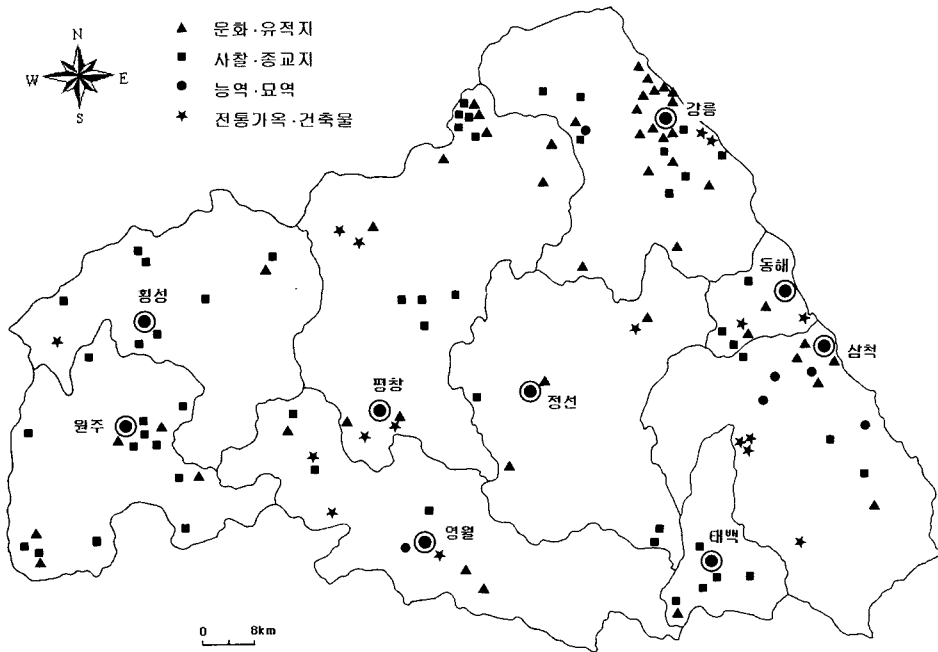


그림 9. 강원 남부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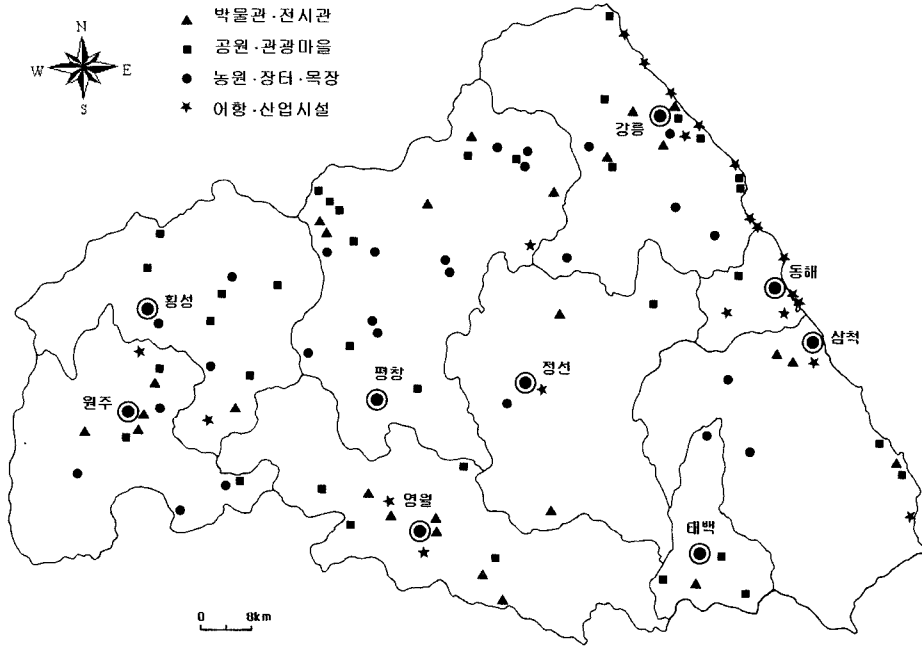


그림 10. 강원 남부지역의 사회·산업관광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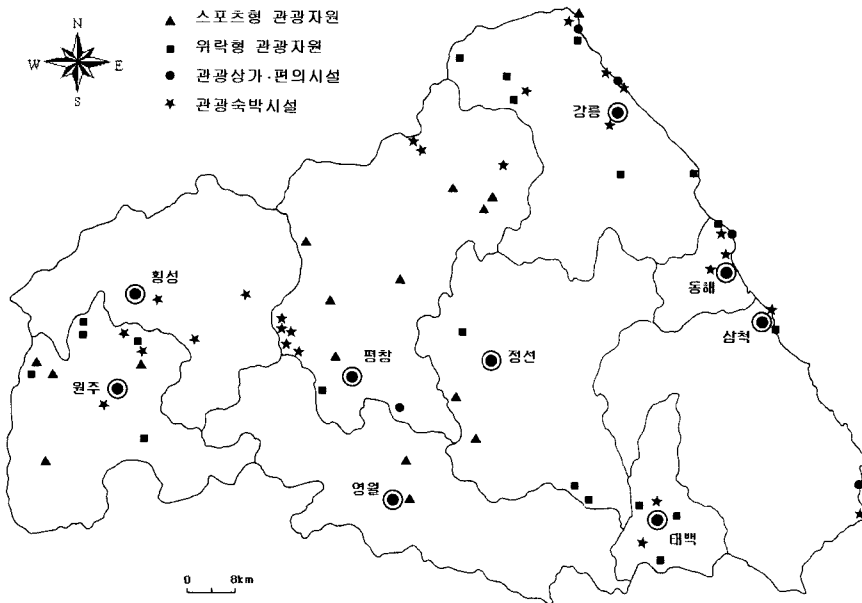


그림 11. 강원 남부지역의 스포츠·위락관광자원 분포

표 8.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사업체 분포

(단위: 개소)

지 역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관 광 편 의 시설업
	일반	국내	국외	관광 호텔	국민 호텔	콘 도 미니업	가족 호텔	전문 휴양 업소	종합 휴양 업소	관광 유람 선업	관광 음식 점업	외국인 전용 음식점	외국인 전용기 념품점	
강 원 도	11	91	141	26	-	40	5	1	5	1	9	1	1	12
남부지역	3	51	83	17	-	15	3	-	2	-	5	-	-	6
점유율(%)	27.3	56.0	58.9	65.4	-	37.5	60.0	-	40.0	-	55.5	-	-	50.0

자료: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2002, 내부자료.

관광객의 시간적 활동과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이다. 이러한 관광사업체의 수와 규모, 체계적인 조직, 배후지역과의 연계성, 생산액의 지역환원 등은 지역의 경제구조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광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관광특화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관광사업은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와 변화를 선도하게 된다.

강원 남부지역은 우수한 관광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 등을 보유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으나 관광사업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사업체별 분포를 보면 여행업 137개소, 관광숙박업 35개소, 관광객이용시설업 7개소, 관광편의시설업 6개소로 강원지역과 비교할 때 각각 56.4%, 49.3%, 38.9%, 50.0%의 점유율을 보여 여행업을 제외하면 관광사업의 성장이 미약한 편이다. 특히 관광숙박업과 시설업은 평균치를 하회하는데 이는 관광객의 관광시설 선호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관광숙박형태가 과거 민박, 여관, 캠핑 등에서 콘도미니엄, 호텔 등과 같은 고급시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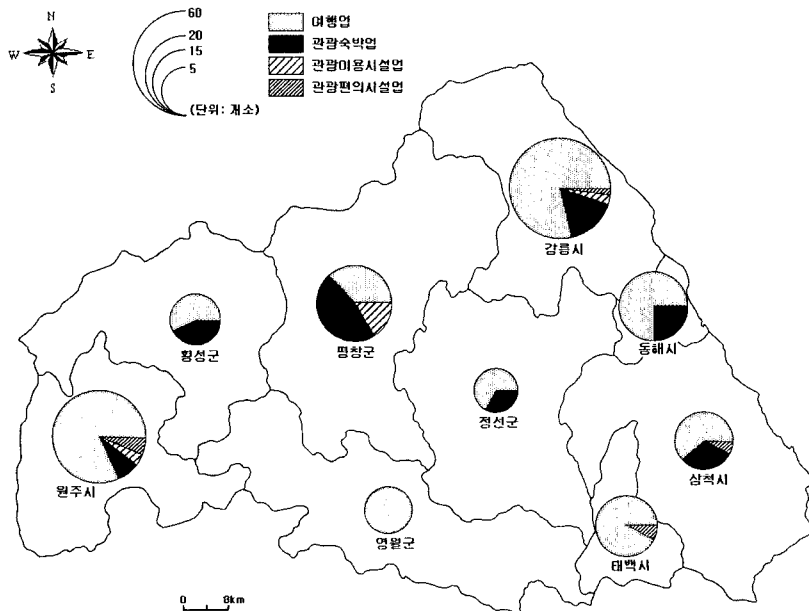


그림 12. 강원 남부지역의 지역별 관광사업체 분포와 규모

자료: 해당 시·군, 2002, 통계연보.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고급 숙박시설이 강원 중부권의 속초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관광권역별 균형발전 및 관광비수기 숙박시설 이용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광사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여행업은 도시 및 시장 규모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업종으로 강원 남부권의 행정 및 교통의 중심지이자 인구규모가 가장 큰 강릉과 원주지역에 각각 33.6%, 30.0%가 집중되어 있다. 숙박업의 경우 업체수와 객실수의 차이에 따라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강원 남부지역의 숙박업 구조는 규모상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평창지역이 특화되어 있다. 즉 객실규모 면에서 대규모 스키리조트가 입지해 있는 평창지역이 36.3%로 수위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삼척지역의 점유율이 높고, 강릉지역은 업체수에 비하여 객실규모가 적은 영세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은 대체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인전용시설업은 전무한 상태이다.

강원 남부지역 관광사업의 구조적 특징은 첫째, 전반적으로 관광사업의 발달이 저조한 가운데 여행업은 강릉, 원주지역 등 행정·교통의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숙박업의 경우는 평창, 강릉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창지역이 대규모 리조트를 중심으로 고급형 숙박형태인 반면 강릉지역은 업체수에 비하여 객실규모가 적은 영세한 숙박형태를 띠고 있다. 셋째, 관광객이용시설 및 외국인 전용시설업 등은 극히 저조하여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구조가 지역관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6. 결론

주 5일 근무제의 실현과 남북 관광교류의 활성화, 정보사회의 도래 등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관광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양식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일찍부터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지로 인식되어 온 강원지역은 국민관광목적지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뛰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정학적 특수성과 불리한 지리

적 여건 등으로 관광산업이 정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광교류, 카지노 단지조성,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기반과 관광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서 관광환경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강원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환경을 고찰하고, 관광수요와 관광자원, 관광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강원도 지역의 관광구조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과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차적인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구조적 특징은 첫째, 관광객과 관광수입을 기초한 현재의 관광수요는 지역내 교통 및 관광거점인 강릉·원주지역과 대규모 리조트가 집중되어 있는 평창지역 등이 높은 반면 관광수요의 변화는 태백, 삼척, 정선지역 등 석탄산지들에서 두드러졌으며, 남북 관광교류의 교두보로 관심을 집중시켰던 동해지역은 관광수요 성장이 미미하여 정책적 과급효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수요의 월별·계절별·관광지별 구조는 하계집중, 자연관광자원 의존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지역별로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관광수요가 분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자원 유형별 분포와 특성을 보면 관광지 및 문화재 지정 면에서 강원 중·북부관광권에 대해 비교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자연관광자원이 전 지역에서 특화되어 있으며, 강릉·영월 등의 문화관광자원, 정선·평창·횡성 등의 위락관광자원, 동해·삼척 등의 산업관광자원 분포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소수의 특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아직까지 관광자원의 발굴 및 이용도가 낮으며, 관광자원의 관리와 보전, 접근성 등이 취약하게 나타났다. 셋째, 관광사업의 구조적 특징은 전반적으로 관광사업의 발달이 속초, 설악권에 비하여 저조한 가운데 여행업은 강릉, 원주지역 등 행정·교통의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고, 숙박업은 평창, 강릉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창지역이 대규모 리조트를 중심으로 고급형 숙박형태인 반면 강릉지역은 업체수에 비하여 객실규모가 작은 영세한 숙박형태를 띠고 있다.

관광객이용시설 및 외국인 전용시설업 등은 극히 저조하여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구조가 지역관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연구결과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지역별 관광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자원의 보전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별 관광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 사회, 위락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자원의 유형별 목록을 작성하고, 지역별, 관광자원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관광사업 및 관광편의시설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가 내재한 전통양식의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내·외적 접근성을 보다 확대하고, 관광시장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강원 남부지역의 관광권역을 보다 세분하여 원주·치악권, 태백·정선권, 강릉·평창권, 동해·삼척권 등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과 권역간 관광 네트워크를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文 獻

권용우·김선희, 1994,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연구동향." 대한지리학회지, 29(2), 202-215.

권용우·정태홍·김선희, 1995, 관광과 여가. 한울아카데미.

김선희, 1996, 경포 해안관광지의 구조적 특성과 관광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_____, 1997, "지리사진의 관광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진지리, 5, 15-29.

_____, 2000, "관광과 세계인식," 한국지리정보연구회, 지리학 강의, 한울아카데미.

_____, 2001, 한국관광지리, 삼영서관.

김선희 외, 1999, 관광과 세계의 이해, 백산출판사.

김창환, 1998, "강원지역 자연환경의 지리학적 특성," 강원사회연구회, 강원환경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71-85.

문화관광부, 2002,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신용석·정선희 옮김, 1999, 현대관광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이종민, 2000, "강원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역할," 강원사회연구회, 강원관광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71-289.

정석중, 2000, "강원 관광산업의 문제점," 강원사회연구회, 강원관광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23-236.

한국관광공사, 2002,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

한국관광연구원, 199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Butler, R. W., 1994, *Alternative Tourism: The Thin End of the Wedge*, in Smith, V. L. and Eadington, W. R.(eds.), 31-46.

Leiper, N., 1991, *The framework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1-44.

McIntosh, R. W. and Goeldner, C. R., 1986,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John Willey & Sons, Inc., New York.

Mill, R. C. and Morrison, A. M., 1985, *The Tourism System*,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202-207.

Pearce, D., 1987,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John Willey & Sons, Inc., New York.

Robinson, H., 1975, *A Geography of Tourism*, Macdonald & Evans, London.

최초투고일 03. 04. 18
최종접수일 03. 06. 05